

2023. 7.

로컬창조생태계 정책모델개발을 위한

영국 연수 결과보고서

목 차

I	연수 개요	3
	1. 연수 목적과 필요성	3
	2. 연수 개요와 배경	5
	3. 연수 내용과 대상자	6
	4. 연수지역 개요와 일정	7
II	사례조사 결과	12
	① 조사지역의 사례 개요	12
	② 방문기관의 조사 내용	18
	1. 런던 브릭스톤 하우스	18
	2. 런던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 센터	23
	3. 런던 해크니 개발 협동조합	28
	4.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	34
	5. 에딘버러 아웃 오브 블루	37
	6. 에딘버러 그라스마켓 타탄	42
III	정책적 시사점	46

1 연수의 목적과 필요성

- 윤석열정부는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고유특성을 살리면서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통한 로컬브랜딩 및 골목상권 육성 강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연계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로컬브랜드 역량 강화 관련된 다부처의 종합적 정책지원이 추진되고 있음
- 외부의 로컬크리에이터를 비롯한 청년인구들의 지방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창의적 자원연계와 활용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음
 - 영국을 비롯한 유럽 서구 국가는 과거 쇠퇴한 낙후지역 재생을 위해 로컬자원 활용한 창의적 활동의 다양한 사례들이 실존
 - 청년이주 및 창업의 단편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특성과 자원을 연계하여 자생적인 로컬활성화 전략의 종합적 관점이 필요
- 로컬의 창조활동은 낙후지역의 인구감소와 지역 사회서비스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충남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
 - 지역사회에서 창의적 활동의 발생과 확산을 위해서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창의적 활동과 지역사회의 자원, 주체, 연관기업 등이 협력하는 생태계적 구성이 중요함
 - 특히 영국사례는 낙후지역의 자생적 로컬활성화 위해 기존 지역주민, 예술가, 소상공인 등 지역주체와 연계를 통해 로컬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 모델의 발견이 핵심

로컬창조생태계 정책지원 체계



- 본 사례조사는 충남의 로컬창조활동 도입과 확산을 위해 지역사회 주체들이 어떻게 로컬자원과 예술의 활용을 도모하며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는지에 대한 정책 및 생태계 차원의 조사를 수행
 - 지역의 역사문화 및 예술적 자산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상품, 서비스를 만들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례들의 탐구와 적용
 - 런던의 구도심 및 저활력 지역에서 주민과 지역예술가들이 함께 연계하여 문제를 극복하는 노력과 정책사례의 조사 필요
 - 로컬의 창의적 활동을 증진시키고 외부의 로컬크리에이터 유입과 활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의 사례
 - 에딘버러의 경우 스코틀랜드 및 지역의 문화자산과 예술활동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참여기반의 로컬문화 형성의 사례 탐구

② 연수 개요와 배경

- 연수기간 : 2023. 07. 16. (일) ~ 07. 22(토) / 5박 7일
- 방문국가 : 영국 (런던, 에딘버러)
- 대 상 자 : 충남연구원(3명)
- 방문목적 : 로컬혁신과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와 공동체활동 조사
- 국외연수의 핵심은 ①낙후지역 로컬재생 현황, ②민간주도 지역문제 해결, ③로컬자원의 창의적 활용

- 런던시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주민주도의 창의적 재생활동이 선도적으로 추진된 지역
 - 달스턴(해크니 지역), 램버스 구 브릭스톤 지역 등 런던의 낙후지역 재생을 위한 지역주민과 창의적 예술인의 협력과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추진 사례 탐구
 - 서더크 자치구에서 코인스트리트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지역재생 사례와 테이트 모던 등 산업유산의 복원과 로컬의 변화에 대한 조사

- 에든버러는 풍부한 스코틀랜드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창의적 상품, 서비스 등 비즈니스 활동과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추구
 - 지역 유희공간을 활용해 지역예술인과 주민 중심으로 예술교육, 공연, 전시가 추진되며 페스티벌과 연계하는 창의적 사례 조사

- 스코틀랜드 전통문화인 타탄의 창의적 제품 개발 판매를 비롯해 이를 기반으로 관련 로컬산업 형성 사례 조사

③ 연수내용과 대상자

○ 낙후지역 로컬의 자원과 문화기반 재생사례 조사

- 주민과 공동체 참여기반의 자생적 로컬활동의 지역활성화 사례
- 지역사회 로컬활동 확산을 위한 지방정부의 제도와 정책 사례

○ 지역문화예술의 창의적 로컬활동 사례조사

- 역사문화자산, 지역예술인과 연계한 로컬의 창의적 상품 및 서비스 개발·운영 사례조사

○ 연수 대상자와 역할

- 충남연구원 연구자 3인

no.	소속	성명	전공 및 역할
1	사회통합연구실 초빙책임연구원	전지훈	지역공동체, 연구책임
2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훈택	사회적경제, 연수실무 및 이동대응
3	사회통합연구실 전문연구원	장창석	갈등관리, 기관방문 및 업무지원

- 충남연구원에서 자체적인 공무국외출장을 주관하여 기관방문 및 보고서 작성과 Q&A 대응
- 연수기간 일정과 관련 점검 대응 및 연수 보고서 작성과 연구과제 시사점 도출방안 마련

4 연구 지역 개요와 일정

○ 연수지역의 개요

기관(현장)명		주요내용
영국 (런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4년 낙후지역이었던 코인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재개발계획수립, 지역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 공동체 기업은 런던 중심부 버려진 부지에 협동출자 방식으로 주택, 가게, 갤러리, 식당, 카페, 공원, 스포츠 시설 등을 만들고 보육, 숙박, 가족 지원 등을 수행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크니개발 협동조합은 런던 달스턴 지구의 대표적 빈민지구에 있으며 공동체 변화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 유휴공간 활용 위한 주거협동조합을 만들고 구청소유 3층 건물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상인, 예술가, 비영리조직들에게 제공 질레트광장 공공개발 프로 젝트를 수행하며 주민들과 야외 프로그램 운영하여 지역을 변화시키고 있음
	런던 램베스 자치구 (브릭스톤 재생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램베스자치구는 협력적 도시경영 원칙으로 지역공동체와 함께 시민중심의 사회적 가치 창출 공동생산을 실행하고 있음 퓨처 브릭스톤과 같은 지역의 민관협력 재생 프로젝트를 다수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와 다수 주민조직에게 정보와 물적기반 제공, 조정 중재 역할을 수행
	테이트모던 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템즈강 남단의 폐쇄된 화력발전소 산업유희시설의 현대미술관 재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런던의 3대 미술관으로 주목받음 전시기능과 함께 메인 로비 터빈홀과 외부 공원시설 중심으로 지역사회 예술, 교육 활동이 수행되며 로컬예술가의 작품도 전시 판매하는 기능으로 지역과 협력활동 수행
영국 (에든 버러)	아웃 오브 더 블루 (Out of The B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예술가 대상으로 활동공간 제공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예술교육 기회를 제공 하는 사회적 기업 지역 홀을 정부지원으로 매입하여 예술가들이 100여명 입주해 있으며 이들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문화예술 클럽이 운영됨 자회사로 Bongo Club과 A LA KART 카페를 운영하며 콘서트, 연극, 전시회 등을 운영하고 있음

<p>그라스마켓 타탄스 (Grassmarket Tarta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딘버러 낙후지역 재생을 위해 교회와 협력한 ‘그라스마켓 미션’ 프로젝트 수행하며 타탄의 로컬자산 활용한 취약계층 자립 지원 ◦ 스코틀랜드 로컬자산 Tartans 패턴 기반 수제품 생산유통 하는 공간 운영하며 마을마다 다양한 타탄 체크패턴 디자인 개발 판매 ◦ 판매공간으로 Grass Market Cafe를 함께 운영하며 주민이 함께 만드는 지역전통 홈메이드 음식도 개발 판매, 취약계층 지원 ◦ 지역장인, 주민들과 디자이너 협업으로 매년 ‘그레이프라이어 타탄 패션쇼’ 개최. 로컬 스토리를 담은 타탄패턴을 개발 홍보
---	--

○ 연수 대상지의 지도와 일정



○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시 간	일 정	비고
1일 7/16 (일)	인 천	10:00	인천 국제공항 3층 출국장 집결	대중 교통
		12:15	인천 국제공항 출발(ASIANA OZ521편)	
	런 던	18:50	히드로국제공항 도착	항공 편
		19:00~ 21:00	식사 및 이동	
		21:00~ 22:00	호텔 체크인 및 휴식	
2일 7/17 (월)	런 던	08:00 ~10:00	호텔 조식 및 이동	대 중 교통
		10:00~ 12:00	▣ 지역답사: 램버스 자치구청 방문 및 브릭스톤 마켓 (Brixton Market) 사례조사	
		12:00~ 13:00	중식	
		13:00~ 15:00	기관방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공식일정 : 브릭스톤 하우스 (London Brixton House) 주소 : 1 Brixton Hill, London SW2 1RW TEL : +44 20 7926 1000 </div>	
		15:00~ 16:00	이동	
		16:00~ 18:00	▣ 지역답사: 런던 테이트모던 미술관 재생사례 탐방	
		18:00 ~20:00	석식 및 숙소 이동	
3일 7/18 (화)	런던	08:00~ 10:00	호텔 조식 후 이동	대 중 교통
		10:00~ 12:00	기관방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 공식일정 : 해크니 협동조합 (Hackney Co-Operative Developments) 주소 : 62 Beechwood Rd, London E8 3DY TEL : +44 20 7254 4829 </div>	

		12:00~ 13:00	▣ 지역답사: 질레트 광장 및 커브드 가든	
		13:00~ 15:00	중식 및 이동	
		15:00~ 17:00	기관 방문 <div>▣ 공식일정 :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센터 (Coinstreet Community Neighbourhood Centre) 주소 : 108 Stamford St, London SE1 9NH TEL: +44 20 7021 1600</div>	
		17:00~ 20:00	이동 및 석식	
제4일 0719 (수)	런던	10:00	호텔 조식 후 이동	대중 교통
	런던	12:00~ 14:00	중식 및 런던 킹스크로스, 세인트판그라스역 탐방	
	런던 ~ 에든버러	14:00~ 19:00	런던 ▶ 에든버러 이동 (기차탑승: 약 5시간)	기차 이동
		19:00~ 21:00	에든버러 호텔 이동 및 투숙	
제5일 7/20 (목)	에든버러	08:00~ 10:00	조식후 이동	대 중 교통
		10:00~ 12:00	기관방문 <div>▣ 공식일정 : 아웃 오브 더 블루 Out of the Blue 기관방문 주소 : 36 Dalmeny St, Edinburgh EH6 8RG TEL: +44 1993 630022</div>	
		12:00~ 15:00	점심식사 및 에딘버러 올드타운 탐방	

		15:00~ 17:00	기관방문 <div> ■ 공식일정 : 그라스마켓 타탄 기관명 : Grassmarket Tartans 주소 : 58 Candlemaker Row, Edinburgh EH1 2QE TEL: +44 131 225 3626 </div>	
		17:00~ 20:00	석식 및 호텔 투숙	
제6일 7/21 (금)	에든 버러	09:00 ~10:00	호텔 조식 후 에든버러 공항 이동	대 중 교통
		10:00~ 11:30	에딘버러 국제공항 출발 (터키항공)	
	이스 탄불	18:30~ 22:50	이스탄불 경유 ▶ 인천 국제공항	항공 편
제7일 7/22 (토)	인 천	16:55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사례조사 결과

1 조사지역의 개요

1. 영국의 일반 현황

□ 국가 개관

○ 국 명 :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잉글랜드(England), 스코틀랜드(Scotland), 웨일즈(Wales),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의 4개 지역으로 구성

○ 국토면적: 243,612km²(한국의 약 2.7배)

○ 인구 : 6,730만 명(2023년 기준)

○ 언 어 : 영어

○ 통화 : 파운드 스텔링(Pound sterling, £)

- 환율 : 1파운드 = 1,678.9(2023. 7. 14 기준)

○ GDP

- GDP 31,868억 달러(2023년 기준, 세계 5위)

- 1인당 GDP 47,334 달러(2023년 기준, 세계 20위)

○ 수도 : 런던(London, 약 800만 명)

○ 정부형태 : 입헌군주제

○ 총리 : 리시 수낙 (영국 보수당 대표)

○ 주요 정당

- 영국보수당 : 영국의 여당으로 대처리즘에 의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
- 영국노동당 : 제2정당이며, 주요산업의 국유화, 사회보장제도 정비를 표방

□ 지방행정체계

○ 영국의 지방정부는 광역 지방정부(County), 기초 자치단체(Borough, District), 통합단체(Unitary Authority)로 구성

- 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법인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준지방정부로는 파리쉬(parish), 타운(Town), 커뮤니티(Community)가 존재

○ 광역 지방정부(County)는 런던광역시(Great London Authority)와 잉글랜드 비도시권 지역 인구 50~150만 정도의 카운티(County) 해당

- 광역 지방정부는 교육, 사회서비스, 교통, 소방, 지역전략계획, 소비자 보호, 쓰레기 처리, 환경보전, 도서관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

○ 기초 자치단체(Borough, District)

- 런던광역시 내에는 런던구(London Borough)와 런던시티 도시법인(City of London)을 포함하여 33개가 설치되어 있음
- 디스트릭트(District)는 각 카운티 내에 인구 약 10만명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계획, 주거, 지방도로, 건축규제, 환경보전, 쓰레기 수거 등의 기능을 수행

○ 통합단체(Unitary Authority)

- 통합단체는 자치단체간 통합(광역-기초 또는 기초-기초간)을 통해 권역 내 기초 자치단체가 광역기능까지 흡수하여 통합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

2. 영국의 공동체 및 로컬정책 현황

□ 영국의 로컬지원 정책(신노동당 정부: 1997~2010)

- 영국정부의 로컬 공동체 지원은 공동체 지원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기반을 갖추
 - 이 시기의 대표적인 법률로 공동체 이익회사법과 자선주식기관법의 제정과 운영을 거론할 수 있음
- 공동체이익회사법(Community Interest Company Act)
 - 지역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는 영국 사회적 기업은 과거 별도 법률의 규정 없이 회사법(Companies Act)의 적용을 받았으나 2005년 회사법의 개정과 함께 공동체 이익회사에 관한 단독 규정이 적용되었음
 - 공동체 이익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이익심사(Community Interest Test)’를 통과해야 하며, 그 자산과 수익이 이러한 목적에 활용된다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 동결(Asset Lock)을 약속해야 함
- 자선주식기관법(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Act)
 - 노동당 정부는 2011년 자선단체법(Charities Act)를 개정하여 자선주식기관(CIO)라는 새로운 법인형태를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
 - CIO는 비영리 목적을 지녔지만 상업활동이 허용된 자선단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자선단체들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공동체 복리증진의 활동이 수행되었음
- 이와 함께 정부는 지역공동체기업 확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
 - 공동체기업 활동환경 조성: 법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동조달 참여를 위한 절차 개선
 - 공동체조직 활성화 지원: 관련 연구조사 활동 및 DB구축, 공동체기업의 날

및 관련 축제 개최지원

- 이외 공동체이익회사 정보제공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자금조달과 세제혜택 추진

□ 영국의 로컬지원 정책(보수당정부 2010~)

○ 2010년 탄생한 보수당 정부는 영국 사회 전체적인 지원방향과 정책기조에 대해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 비전을 발표

- 빅소사이어티 단어의 의미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회를 의미함
- 보다 구체적으로 빅소사이어티는 마을과 지역사회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정책에 기반
- 정부가 수행하던 공공서비스를 비영리단체, 공동체이익회사, 사회적기업 등에 이양하여 맞춤형 서비스 실행을 유인
- 비영리 조직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 개인과 시민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행정 지원이 주요한 내용

○ 보수당 정권에서 로컬과 공동체 육성정책은 공공서비스 수행주체 확대 및 민관협력 관계 개선에 집중

- 영국 정부는 공동체이익회사의 공공서비스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과중심의 계약 실행, 공공서비스 입찰시 컨소시엄 방식 지원 등 추진
- 비영리 및 시민사회 중앙정부간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콤팩트 프로그램을 통한 협약 중심의 효과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마련
- 구체적 지원방안으로는 공동체이익회사 금융지원을 위한 사회목적투자인 빅소사

이어티캐피털, 사회적투자세금공제 등 다양한 기금체계 운용한 것이 특징

□ 지역주권법(Localism Act)의 제정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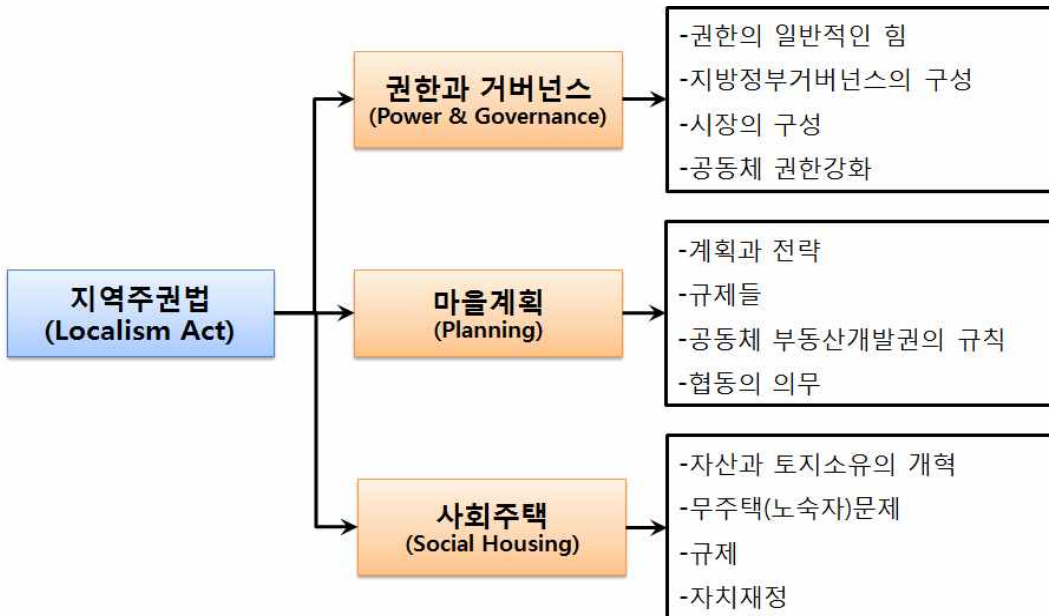
○ 보수당 정책기조에 따른 지역주권법 제정의 배경

- 영국에서 현장기반의 로컬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동의 선진사례로 자리매김한 주요한 제도로 지역주권법(Localism Act)가 있음
- 영국지역사회는 1970년대부터 공동체 자산(Asset)을 활용하여 지역의 사회적욕구를 충족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신공동체경제개발운동 등장
- 로컬리티는 지역발전을 위한 마을사업이나 마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전국 지역공동체 연합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제도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법률제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실시함
- 2010년 구성된 연합정부는 Big Society정책기조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 커뮤니티에 권력을 이양하는 Localism Agenda 정책기조를 수립하고 이에따라 영국의회의에서 2011년 4월 지역주권법 승인

○ 지역주권법의 내용과 구성

- 법안의 목적은 지역사회 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 및 지역공동체에 행정 관련 권한 이양과 재정적 자치권 확보로 지역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
- 구체적으로 지역의 유희 공유재산 등에 대한 지역공동 소유·관리제도를 도입하였고 지역자산에 대해 지역공동체 소유권으로 통칭되는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공식적으로 법제화
- 전체 지역주권법의 내용 중에서 형식적 부분을 제외하고 공동체 및 지역사회와 관련된 법률내용은 5, 6장이며 7장은 사회주택의 내용을 담고 있음.

지역주권법의 주요 구성내용



- 지역주권법의 주요내용은 3가지인 권한과 거버넌스, 마을계획, 사회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역공동체로 권한이양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의미하며 다음의 마을계획은 지역공동체 계획수립에 있어서 공동체 중심의 권한부여를 의미하며 사회주택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주택설립을 위한 내용을 의미
-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대폭적인 권한이양과 책임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체에 지역사회 개발과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임
- 이러한 공동체 권한의 내용은 5가지로 제시됨
 - ① 매각자산에 관한 공동체 우선입찰권(Community Right to Bid)
 - ② 공공서비스공급 및 운영 우선참여권(Community Right to Challenge)
 - ③ 커뮤니티 마을계획권(Neighbourhood Planning)
 - ④ 커뮤니티 부동산개발권(Community Right to Build)
 - ⑤ 유허공공토지 활용요청권(Community Right to Reclaim Land)
- 이와 같은 공동체에 지역사회 개발 권한을 부여하여 다양한 문화자산이 보존되고 지역문화가 활성화하여 로컬의 창조적 활동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음

② 방문기관의 조사내용

1. 로컬 낙후지역의 변화: 런던 브릭스톤 하우스

■ 사례개요

- 브릭스톤 지역은 런던시 템즈강 남쪽의 램버스 자치구에서도 주로 아프리카계 카리브해 출신 인구가 많은 다민족 공동체 지역으로 성장하였음
- 19세기부터 런던 중심부와 교통·통신시설이 구축되면서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무분별하게 개발된 지역으로 런던 남부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하고 우범지역으로 인식
- 특히 급격한 이주민 증가는 실업률과 범죄율을 상승시켰고 이로 인한 정부의 무분별한 진압은 다수의 폭동을 야기하였으며 다수의 흑인 거주로 인한 지역의 인종차별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요구가 높아졌음
- 하지만 2000년 이후 램버스자치구는 브릭스톤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재생을 위해 브릭스톤 시장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 로컬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도모하였음
 - 우선 브릭스톤 지역을 포함하는 램버스 자치구의 경우는 브릭스톤의 변화와 개선을 위한 ‘퓨처 브릭스톤’이라는 프로젝트를 민간주도의 거버넌스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램버스 자치구 초기 프로젝트에 구축되어 현재도 근방의 브릭스톤 시장을 비롯하여 낙후지역의 개선과 지역예술 및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브릭스톤하우스의 역할이 있음
 - 브릭스톤 마켓은 런던 남부지역에서 유명한 재래시장으로 카리브해,

아프리카 등 글로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한 창의적 로컬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간임

■ 주요내용

○ 런던 램버스 자치구의 퓨처 브릭스톤 프로젝트와 재생 정책

- 램버스 자치구청에서는 간단한 구정 방향을 설명하고 자세한 브릭스톤 사례는 브릭스톤 하우스에서 조사를 진행
- 브릭스톤을 포함한 램버스 자치구는 영국의 23개 혁신적 거버넌스 구현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의 공공서비스 결과보다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이 받는 공공서비스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평가하는 새로운 공공활동을 추구
- 이러한 지방정부들의 변화를 지역주권법 이후 확산되었으며 특히 램베스 자치구는 협동조합 지자체를 선언하며 이를 위한 원칙들을 제시함
 - ① 램베스 구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역동적이고 강력한 지역사회를 촉진하고 지원
 - ② 지역 공공서비스는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조직을 통해 공급
 - ③ 구민들은 호혜주의에 입각해 공공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에 적극 참여를 장려
 - ④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 활동과 참여를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
 - ⑤ 램버스 구 모든 지역에 보편적인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함
-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 램버스 자치구는 정부에서 공공서비스의 정책을 설계하거나 집행하기 보다 주로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보하여 다양한 주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퓨처 브릭스톤과 같은 지역재생사업에서는 브릭스톤하우스, 브릭

스턴 그린 등의 비영리 조직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계획하는 과정들을 거쳤음

- 구청은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워크숍을 커뮤니티센터에서 개최하고 집집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렴결과를 뉴스레터로 발송하는 과정을 지속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행정에 대한 주민불만이나 폭동의 움직임도 사라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 주민참여 지역재생과 문화예술활동의 거점 브릭스톤 하우스

- 브릭스톤 하우스(Brixton house)는 서머레이튼 지역의 오벌 하우스(Ovalhouse) 극단이 활동하는 극장을 재개발한 5층 규모의 신식건물로 2009년 브릭스톤 개발프로젝트 초기단계(서머리튼 로드 구축 프로젝트)에 구축됨
- 브릭스톤 하우스는 과거부터 이어오는 브릭스톤의 이민자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통합과 사회적 응집력을 형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물리적 공간, 프로그램,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초기에는 브릭스톤에서도 서머레이튼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로 브릭스톤 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문화예술, 주택, 일자리, 교통, 치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
- 브릭스톤 하우스에 대해 안내를 도와준 공간매니저(Space Manager) 포스터 윌슨(Poster Wilson)은 1층의 공간에 대해 브릭스톤 마켓과 붙어있는 공공공간과 같은 맥락에서 기능함을 강조하며 외부에 있는 거대한 벽화는 외부와 단절을 극복함을 강조
- 2층-3층에는 120석 규모의 이동식의 극장과 강당 2곳이 있으며 무대 제어실과 리허설 스튜디오가 있음. 4-5층에는 창업 및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구축됨
- 브릭스톤 하우스는 램버스 자치구의 퓨처 브릭스톤 프로젝트의 기반활

동을 수행하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으로 제시된 자유롭게 상호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기능과 함께 주민의 욕구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 및 참여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음

-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브릭스톤 마켓에서 지역기반 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공예, 직물, 독립서점, 길거리 음식 등의 아 이템에 대한 창업과정 교육과 역량강화의 교육 기능도 함께 수행함
- 처음 브릭스톤 하우스의 개발과 건축부터 오벌하우스 극단은 램베스 자치구와 맺은 Brixton Culture Enterprise Zone 협약에 따라 하우스가 위치한 브릭스톤 주민과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이들의 공익적 요구를 수용하고 있음을 강조
- 이러한 프로젝트에 따라 브릭스톤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통과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7월 말에는 브릭스톤 하우스의 공연장을 기반으로 지역예술가 및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 (Brixton Housemates Festival)이 개최됨

○ 브릭스톤 마켓을 통한 로컬 크리에이터의 유입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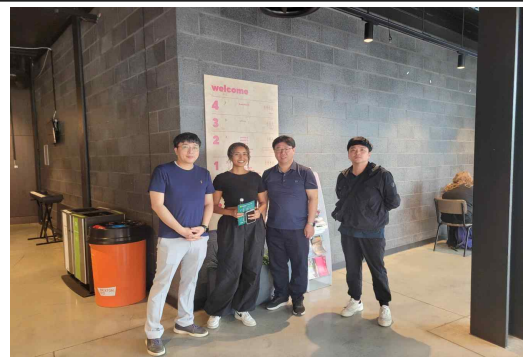
- 브릭스톤 마켓은 섬머레이튼 거리를 비롯하여 브릭스톤 지역의 3개 주요 도로와 구역이 만나는 요충지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처럼 독립적 공간의 다양한 상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시장 곳곳에 작은 광장과 소통공간이 구축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간에 교류의 창구역할을 수행하고 다양한 이민자들이 집적된 지역이라 이들의 독특한 문화들을 접하고 교류하는 역할을 오래전부터 수행함
- 브릭스톤 하우스의 소개를 받고 찾아간 시장내 매장들은 창업교육 및 관련 활동들을 거쳐 시장내의 빈점포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받아 운영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 있었음
-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낸시 스튜어트는 브릭스톤 하우스 예술가 출신으로 지역문화 및 세계적인 예술서적을 취급하고 있으며 브릭스톤 하우스

- 스를 비롯한 지역움직임을 방문객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수행함
-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의 공예품을 판매하는 주디 브랜트는 퓨처 브릭스톤 프로젝트에 지역 예술품의 브릭스톤 마켓입점을 건의하였고 먹거리와 함께 가장 인기있는 매장중에 하나임을 강조하고 있음

■ 현장사진



브릭스톤 하우스 전경



인터뷰 후 촬영



공간운영팀 인터뷰



브릭스톤 마켓



시장 내 독립서점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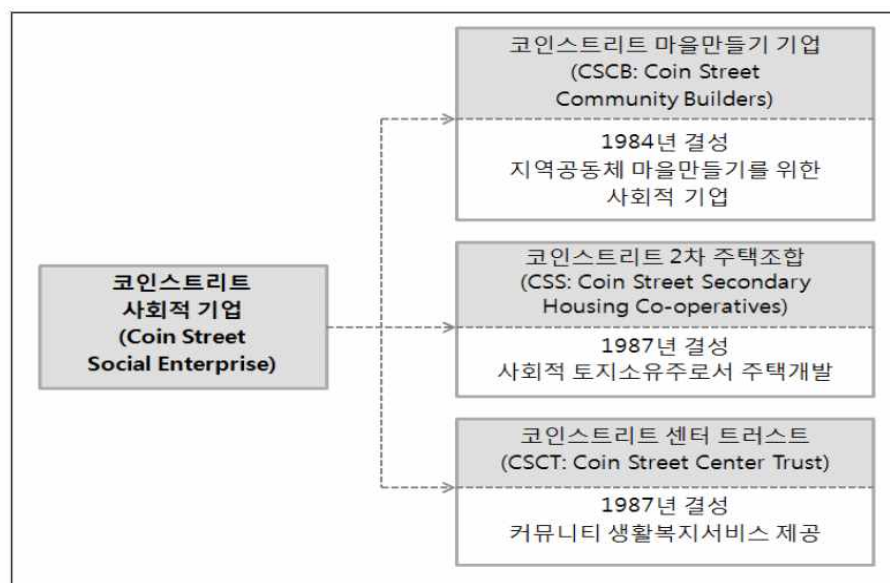
람베스자치구청 관계자 안내

2. 주민공동체 기반 재생사례: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 센터

■ 사례개요

- 코인스트리트 지역은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으로 변모
 - 코인스트리트 지역은 1970년대 템즈강 해운 및 항만기능이 쇠퇴하여 쇠락하였지만 워털루역 건설 이후 지대가 상승하면서 민간 재개발 요구가 높아지면서 거주하는 주민 중심의 주택공동체 활동으로 시작
 - 1970년대 초반 템즈강변 남단에 런던광역시청(Greater London Council) 건물이 지어지고 서더크 지구가 국립극장 유치, 테이트모던 미술관 구축 등 문화예술지구로 조성되면서 코인스트리트 주변 지역에도 런던의 도시변화에 따른 개발압력이 생기기 시작했음
 - 런던이 국제금융도시를 지향하며 시작된 재개발압력은 서더크 지역까지 밀려왔고, 1974년 민간개발업자는 유럽 최대의 초고층 빌딩 건설을 계획 하고 바닥연면적 13만 제곱미터인 사무소와 호텔 개발을 신청
 - 가난한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재개발 계획안에 불만이었던 사우스뱅크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지역의 다양한 활동그룹을 집결하여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것이 코인스트리트지구 마을만들기 운동의 시작
- 코인스트리트 무브먼트는 코인스트리트 액션그룹을 모태로 하여 사회주택 분야로 추진됨
 - 코인스트리트 계획안은 이곳에 토지의 절반가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주민주도형 지역개발운동을 펼친 코인스트리트 그룹연합체가 제출하여 민간개발업자가 포기함에 따라 토지를 매각
 - 지역주권법의 법률을 기반으로 런던 광역시청은 매입한 토지를 코인스트리트 마을만들기 사업체에 매우 저렴한 가격(75만 파운드) 매각

- 코인스트리트 사업체는 취득 토지를 기반으로 에셋 매니지먼트 (Asset Management) 과정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주택 방식의 공급을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는 녹지공원, 강가의 산책로, 복지서비스 제공 같은 서더크 인근 도시재생사업으로 확장
-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조직과 주요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음



마을만들기 사업체에 의한 사업화	1985년	코인스트리트 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멀버리 주택조합 설립
	1988년	멀버리 주택조합에서 임대주택 56호 건설 가브리엘 부두 리모델링을 통해 마켓 개설
	1992년	주택 외의 자산관리 자회사 설립
	1993년	옥소타워 리모델링, 레드우드 주택조합 임대주택 완공
커뮤니티 거버넌스 구축	1994년	팜 주택조합 임대주택 완공
	1996년	옥소타워 상업임대건물 영업시작
	2002년	사우스뱅크 임프로이어스 그룹과 연대하여 사우스뱅크와 도심에 있는 버스 서비스 유치
	2005년	어린이 보육원과 스포츠 시설 운영둔 스트리트 고층복합빌딩 건설계획 신청
	2007년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 센터 개관

-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활동은 이후 상업건물 리모델링과 임대업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마련

- 현재 코인스트리트 공동체(CSCB)의 주요사업은 공공주택사업과 지역 발전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주택사업은 주택협동조합에 의해 거주지 재개발 사업이며 입주자들을 사전 선정하여 협동조합 구성 이후 훈련코스 이수 이후 지역 공동체성 공유를 강조하고 조합원으로서 공동소유 형태를 보임
- 1990년대 이후에는 주택조합에서 확장하여 코인스트리트 주변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을 실시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제분소 공장이었던 OXO타워 리모델링, 버니스페인 가든 조성, 가브리엘스 워프의 예술 디자인 스튜디오 재구성을 거론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 센터(Coinstreet Neighborhood Center)는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거점 중에서 비교적 최근인 2007년도에 설립한 공간
 -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 센터는 본래 코인스트리트 주민 대상 편의 시설 제공 및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 창업지원,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음
 - 네이버후드 센터의 코디네이터인 레이 브라운씨는 외부에서 코인스트리트 사례조사 및 공간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본 센터가 공동체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언급
 - 본 센터에 CSCB 사무실을 비롯한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입주해 있으며 주민들의 행정업무 및 편의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
- 현재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주요 사업은 공간자산 관리에 기반한 사회적 개발

- 주요한 사업내용은 임대주택 운영, 주차장 운영, 상업시설 임대,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특히 OXO타워나 가브리엘스 워프 등 지역 내 상업시설 임대 및 직접 운영을 통한 자산관리를 통해 공동체의 수익이 발생
 - 최근의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수익은 상업시설 임대료가 절반을 차지하며 주차장 수익료가 20여%, 옥소타워의 매장 및 레스토랑 임대료가 10%정도를 차지하는 게 주요한 수입원임(2020년 기준)
- 수익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로 사회주택 및 복지사업과 함께 지역주민 대상 일자리 제공이나 로컬 창업의 교육·지원활동 수행
- 둔 스트리트 개발 등 현재도 코인스트리트 공동체 수익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나 네이버후드센터 건립 등 주민복지활동과 함께 옥소타워 및 가브리엘스 워프, 둔 스트리트에 지역주민 점포를 개설하고 있음
 - OXO타워도 전망좋은 레스토랑 수입 임대료를 활용해 2-3층의 상점가에 지역주민들로 조직된 바버샵, 음식점 및 관광안내소가 운영
 - 가브리엘스 워프에도 지역주민들이 베이커리와 PUB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적 문화를 로컬의 창조활동으로 전환하여 확산
- 현재 코인스트리트 공동체는 복지에서 창조적 활동으로 변모
- 현재 코인스트리트 지역은 주민복지 중심의 자원활용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코인스트리트만의 공동체적 문화를 알리는 다양한 로컬문화의 확산으로 변모하고 있음
 - 레이 브라운씨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서더크 지역의 코인스트리트의 공동체 문화를 전파하고 로컬의 자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언급함

- 그리고 보다 장기적인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의 재정확보를 위해 현재의 임대료 수익보다는 다양한 주민중심의 창업과 일자리 활동을 통해 자립적 삶을 일구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 현장사진

	
코인스트리트 네이버후드센터 외관 전경	
	
매니저 및 코디네이터 인터뷰 촬영	
	
OXO타워 전경	가브리엘스 워프 전경

3. 해크니 낙후지역 재생사례: 해크니개발 협동조합 사례

■ 사례개요

○ 1970년 이후 런던 외곽의 낙후 지역인 달스턴구 쇼디치 및 해크니 지역의 재생은 정부의 주요 핵심 문제

- 달스턴(Dalston)의 해크니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대량의 폭격으로 마을 건물 대부분이 붕괴되고 복구하지 못해 공동화 된 지역으로 방치
- 폭격의 폐허 속에서 소유권이 불분명했던 땅들은 빈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스쿼터들 차지이 되었는데 이들 중심으로 해당 지역에서 자신들의 활동 거점 형성을 위해 1979년 해크니 주거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이후 해크니개발협동조합(HCD)로 발전됨
- 달스턴 구청은 스쿼터가 빠져나간 빈 공간을 사유지로 편입했지만 활용도에 대해 문제가 있고 오히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HCD에게 통후추 한 알을 조건으로 남는 부지와 건물에 대해 100년간 3층 건물을 임대해주었음
- 이러한 계약방식은 영국에서 전통적으로 통후추 계약이라 거론되며 땅을 쉬게 하는 것 보다 활용이 중요하다는 귀족들의 방식을 따라 값싼 조건으로 농사 지을 땅을 빌려줬던 전통적 계약방식

○ 해크니협동조합개발(HCD)은 임대한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지역 활성화를 도모

- HCD는 이러한 공간 활용을 위해 시중가의 50%정도의 임대료만 받고 공간을 임대하여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벌어지고 문화예술인, 취창업 크리에이터들이 유입하도록 촉진
- 임대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 단체, 문화예술 단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기업, 여성 사업가, 장애인 사업가와 같이 사회적 가치 혹은 커뮤니티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세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
- 이들에게는 시중에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물 공간을 임대해주어 지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 공간임대사업과 함께 HCD는 다양한 주민의 교류·소통과 문화예술 활동 운영으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

- 대표적인 성공사례는 런던 서북부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났던 장소를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시킨 '질레트 광장(Gillett Square)' 재생 사업
- 질레트 광장(Gillett Square)은 원래 자동차 주차장이었던 곳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마약거래 및 폭력행위의 온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런던 동북부의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2003년 이후 HCD와 달스턴 자치구, 런던시가 이 공간을 '해크니 공공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기획하여 커뮤니티 허브공간으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임
-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거리의 무직이나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고 자금부족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노상가판대 및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등의 새로운 활동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 가장 큰 효과로 여겨짐

- 지역민들이 자신의 물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장이 열리거나 지역 공동체기업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주로 지역 사회를 위한 지역 축제, 문화행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는 공간임

■ 주요내용

○ 해크니협동조합개발은 공공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지역 주민의 시각에서 접근한 방식

- HCD의 현재 CEO인 도미닉 엘리슨씨는 해크니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유헴공간과 위험한 거리, 부서진 건물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었음을 강조
- 특히 심했던 지역이 Bradbury Street과 Gillett Square였는데 자치구 범죄의 30%가량이 벌어져 지역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지만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철거할 비용도 마련하지 못함
- 그래서 잘 알려진 통후추 임대방식으로 공간을 획득한 HCD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임대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 하지만 임대의 원칙은 있으며 사회적 기업, 공동체조직, 달스톤에 문화를 제공할 수 있는 단체, 소수민족이 참여하는 기업, 여성 사업가, 장애인 사업가, 글로벌 기업이 아닌 해크니 사람들이 소유한 기업에 임대

○ 현재 HCD는 통후추 한알로 시작하여 달스턴 지역에 다양한 공간을 임대하는 지역 에셋매니지먼트의 전문회사로 성장

- 현재 HCD는 10명 이상의 종업원과 300명 이상 지역멤버들이 함께 근무하는 조직이며 이와 함께 다수의 자원봉사단체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영리단체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임대료 등 이윤의 100%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1년 매출액은 대략 800만 파운드 규모임
- HCD는 현재 해크니를 포함한 쇼디치 및 달스턴 지역 내 80여개의 사무실과 BAR, 클럽, 카페, 다양한 상점 및 메이커스샵 등 공간 임대를 실행하고 있음
- 과거 통후추 한알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임대료 수익으로 추가 공간을 매입하거나 달스턴 자치구로부터 자산이전(Asset Transfer)을 통해 저렴하게 매입한 공간들도 있음

○ HCD는 본래 부동산 개발회사로 출발했지만 공동체이익회사(CIC)로 조직 형태를 변경

- 공동체 이익회사로 변경한 것이 현재 해크니협동조합개발의 정관이 나 비전과도 부합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정체성 부여의 기회가 됨
- 수익의 분담이나 지역사회 재투자 측면에서도 주체별 수익금이 분배되는 단점 보완을 위해 투명한 재정운영 요구하는 정부 요구에 따라 공동체이익회사로 변경
- 이러한 변화를 통해 달스턴 지역구나 런던시 등 공공으로부터 자금 유치가 더욱 용이해 졌으며 투명한 관리운영이 가능하게 됨

○ HCD는 과거 임대를 통한 지역활성화에서 현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주민교육, 취창업 활성화, 주변지역 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등 확산

- 임대를 통한 이윤은 주로 현재 지역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장에 필요한 운영자금 또는 지역주민 대상 이벤트를 개최할 때 사용되고 있음
- HCD는 2003년 이후 런던시와 함께 추진한 '공공 공간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질레트 스퀘어를 거리, 광장문화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고 광장 한쪽에 달스턴 문화의 집(The Dalston Culture House)을 조성하였음
- 달스턴 문화의 집은 다양한 공연전시활동이 개최되는데 특히 장기 입주한 볼텍스 재즈클럽은 택시운전자가 지역 주민을 위한 재즈 공연 공간을 만들면서 시작하였고 유명 뮤지션들이 무료로 연주를 하면서 달스턴의 명소로 자리 잡음

○ HCD는 자체적인 사업도 추진하지만 지역기반 구체적 사업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역량을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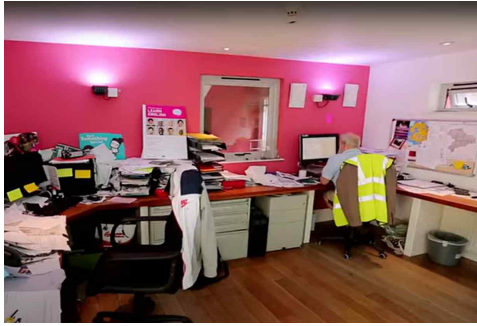
- 자원봉사는 활동은 다양한 형태에서 매우 효과적인데 우선 지역 사회에 부드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서로 부탁을 통한 교류로 다양한 참여활동을 독려하여 오너쉽이라는 마인드를 형성하도록 도와줌
- 이와 함께 지역사회 대상 학생들 중심으로 3주간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공동체기업에서 활동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여 미래의 지역 활동가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도 있음

○ 이와 함께 질레트 광장이나 문화의 집, 근방 쇼디치 마켓 등의 공간임대

를 통한 주민의 역량을 발휘한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 HCD중심의 지역활성화와 함께 지역주민들이 상호교류를 통한 적극적인 지역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공간에 함께 참여시키는 역할
- 해크니만의 다인종 혼합의 문화교류를 특색으로 한 공연, 전시, 공예, 먹거리 등 특화시켜 로컬문화로 확산하는 역할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HCD소유의 공간임대를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현장사진

	
<p>해크니개발협동조합 사무실</p>	<p>달스턴 커브드 가든 전경</p>
	
<p>질레트 광장 운영팀 안내</p>	<p>질레트 광장 전경</p>
	
<p>CEO 도미니크 엘리슨 씨 설명과 사무실 전경</p>	

4. 쇠퇴한 산업유산의 예술적 활용: 테이트모던 미술관

■ 사례개요

- 런던시는 역사적으로 템즈강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이에 대부분의 주요 건물 및 역사적 유산은 강북지역에 위치해 있음
 - 대표적으로 영국박물관, 내셔널갤러리 모두 강북지역에 소재해 있으며 1970년대 이전에 템즈강 남쪽지역에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하여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었음
 - 내셔널갤러리는 중세 및 근대 회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반면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현대미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런던의 예술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음
 -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전시기능보다 수십년 이상 지속된 템즈강의 경제, 사회, 문화적 남북 지역격차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큼
- 제조업 및 템즈강 일대 주요 산업 쇠퇴로 인한 산업유산 재활용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
 - 테이트 재단은 권위를 갖춘 순수민간 미술재단으로 영국에 4개의 대형 미술관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런던 시내 대형 미술관 운영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대체 부지를 물색중
 - 지대상승 이유로 난관을 겪은 테이트 재단이 선택한 곳은 강변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로 과거 1960년대 대규모 산업용 건물로 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던 대표적인 공간이나 1981년 경기불황으로 폐관
 - 1960-1970년대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는 한때 산업대성당 랜드마크로 시민들의 기억속에 있으나 서더크 지역 쇠락으로 20여년간 방치됨
 - 이후 템즈강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테이트재단에 의해 전세계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으로 재탄생하게 됨

-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건축설계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화력발전소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근대건축유산의 상징성을 높게 판단

■ 주요내용

- 테이트모던 미술관의 공간적 관심은 로컬과 상생하는 터빈홀의 공간적 기능
 - 테이트모던은 거대한 화력발전소의 공간을 최대한 재활용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은 길이 155m, 폭 23m, 높이 35m에 이르는 터빈홀이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 타워에서 현대미술의 다양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음
 - 테이트모던 미술관 안내인인 질 에반스는 터빈홀에 대해 비움과 간결함으로 정의하면서 설비시설을 제거하고 기본적인 철골 구조체를 유지하여 산업유산을 간직함과 동시에 미니멀리즘의 현대성 추구가 핵심임을 강조함
 - 터빈홀의 공간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천장을 개방해 자연광을 활용하였고 미술관 입구에서 터빈홀로 직접 이어지는 경사로와 2층 발코니를 설치하여 압도적 공간감에 대한 시각적 효과 추구를 강조하였음
 - 이러한 터빈홀의 거대한 공간은 다목적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되는데 대부분은 실내의 광장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며 로컬과 지역의 필요에 따라 컨퍼런스, 청소년 캠프,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실내 로컬문화의 거점으로 활용
- 테이트모던 내외부공간의 로컬문화 활동을 위한 역할
 - 테이트모던 미술관은 내부공간과 함께 외부공간에도 로컬상생의 변화를 도모하였는데, 우선 접근성 강화의 요인을 거론 할 수 있음
 - 본래 뱅크사이드 화력발전소 운영 및 폐업당시 버려진곳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나 테이트모던 미술관 설계 당시 템즈강변으로 이어지는 공간에 테이트모던 가든, 테이트커뮤니티 가든의 시민공간 조성

- 테이트모던은 미술관과 별개로 시민접근성을 강화해 수변형 녹지공원을 조성하였고 자유로운 시민들의 로컬문화활동을 독려하는 시민들의 공간으로 운영됨
- 특히 밀레니엄브릿지와 연결되는 커뮤니티가든은 야외전시장, 버스킹 공간, 폴리마켓 공간 등 로컬주체들이 주로 행사를 진행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테이트모던을 찾는 관광객이나 주민들은 증가하는 상생효과를 누리고 있음
- 그리고 미술관 내부의 기념품숍에는 지역 예술가 및 로컬크리에이터들의 창작품들을 함께 전시·판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더크지구 예술가 작품의 판로로도 활용되어 수익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현장사진

	
테이트모던 미술관 외부 전경	
	
내부 터빈홀 전경	운영팀 인터뷰

5. 에딘버러 예술가 중심의 로컬문화형성: 아웃 오브 블루

■ 사례개요

○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지역의 쇠퇴와 극복 활동

- 스코틀랜드의 경제적 심장부인 에딘버러와 글래스고는 모두 바다와 인접한 항만지역으로 19세기부터 철강 및 조선과 제조업이 발달하며 주변의 인구를 흡수하던 지역
- 하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조선과 철강산업이 쇠퇴하였고 1980년 이후 제조업 규모도 축소되면서 에딘버러를 포함한 스코틀랜드도 급격한 경제 위기에 봉착하였고 이는 잉글랜드보다 심화되어 빈부격차가 확대
- 21세기부터 스코틀랜드 정부도 영국정부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기업 기반 지역재생 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규모가 확대되었음
- 스코틀랜드는 런던과 달리 대규모 금융 및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인구규모도 적어서 지역차원의 문화 및 역사자산 활용에 정책지원의 관심이 큰 특징이 있음
- 특히 에딘버러는 15세기 이래로 스코틀랜드의 오랜 수도로 기능했으며 올드타운을 비롯한 문화적 자산과 프린지페스티벌 등 예술활동으로 유명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문화예술 중심의 로컬활동이 활발한 도시임

○ 에딘버러 아웃오브블루(Out of the Blue)의 배경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아웃오브블루는 1994년에 설립된 문화예술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설립 당시 아웃오브블루는 지역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 최대한 참여하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한 제한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최초에는 에딘버러 시가지의 유헤 버스차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활용하였으나, 활동의 자율성 및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건물 소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9년 당시 군인훈련용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예술가 중심으로 만든 집단이었으나 21세기 이후 관심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예술체험, 참여활동, 예술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음
- 현재는 아웃오브더블루 공간의 드릴홀에서 지역주민 대상의 예술활동과 함께 입주기업 대상의 구인 및 취업활동이나 교육을 통한 에딘버러 지역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음
- 대외적으로도 에딘버러 시정부 및 지역사회 중심의 이슈에 대응하는 예술활동도 예술기업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벌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 아웃오브블루의 현황과 활동내용

- 사회적 기업 「아웃오브블루」는 드릴홀을 운영하면서 지역 예술가들과 함께 사회적 변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 매니저이며 소셜케어부문 담당자인 Nicole Lambeng과 Jonny Gailey는 아웃오브블루의 미션과 비전을 소개하면서 핵심가치 및 주요 활동을 소개해 주었음
- 미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술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비전은 예술로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의 이슈에 예술로 대응한다 임
- 아웃오브블루 주요 사업영역은 크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①지역 예술가들에게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실 공간 제공 (시세의 50% 이하 가격)
 - ②소유한 드릴홀 공간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이벤트와 공연 진행
 - ③에딘버러 올드타운내 100% 출자한 자회사로 공연장 봉고클럽 운영

- ④에든버러 시내 및 올드타운에 소속 예술가와 주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 아웃오브블루에 입주해 있는 에든버러의 예술가들은 100명 정도 규모이며 평균적으로 월 임대료는 80파운드 정도임
- 하지만 공간이 가변적이고 크기가 다르며 예술가 및 주민들과 상호교류 활동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일반적 작업실과는 다른 임대구조
- 현재도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가들이 있지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에든버러 지역사회의 변화와 주민참여활동에 의지와 계획이 있는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추가 공간을 여전히 모색하고 있음

○ 아웃오브블루가 접근하는 지역문제와 비즈니스 모델

- 아웃오브블루가 접근하는 지역문제는 ①지역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 부족 ②작품의 유통과 판매기회 부족 ③지역주민의 문화향유 및 교육 기회부족 ④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 경제활동 부족
-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웃오브블루가 접근하고 있는 해결방안과 비즈니스 방안은 다음과 같음
- ①지역 유허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술가 작업 및 주민교육, 참여공간으로 활용하며 공간확보 위한 공공자금, 가치자금 등 활용
- ②확보된 공간은 예술활동, 커뮤니티활동으로 운영하며 수익금으로 예술교육과 주민참여활동으로 활용
- ③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예술, 문화,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하여 로컬활동가 육성

○ 아웃오브블루가 수행하는 로컬활동의 접점

- 아웃오브블루는 기획공연이나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는데 대부분 에든버러 지역사회 문제나 현상을 주제로 작품을 기획하며 이 단계에서 주민들이나 공동체의 참여부분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에는 에든버러 군인 100주년 추모식에 대한 기획과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행사 및 관련 굿즈나 기념품 제작 등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한 경험 있음
- 또한 에딘버러의 청소년 우범지역에서 예술가들과 청소년이 협력하여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사회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음.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로컬 예술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에 대한 교육의 지원이 높아짐
- 특히 공간의 입구에 위치한 카페는 지역주민들의 열린공간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되며 공예, 미술, 공연 등의 활동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함. 그리고 이에 대한 역량이 높아지만 실제 관련된 창업을 하거나 예술가로 활동을 하고 있음
- 이러한 주민참여활동은 확대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연간 500여건의 주민과 청소년 대상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10만명 이상 사람들이 아웃 오브 블루 공연 및 전시행사를 위해 방문함
- 초기 공간매입 이후에도 활용을 위한 많은 고민과 논란이 있었으나 지역예술가의 자율성 확보와 로컬 공동체와 점점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갖고 20년 이상 운영을 확장하고 있음. 공간매입의 전략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활동의 가치가 이에 묻히거나 매몰되면 운영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강조함

■ 현장사진



아웃오브블루 외관 전경



공간안내(이벤트 현황)



프로그램 매니저 인터뷰



드릴홀 운영자 공간안내



내부 홀 전경

6. 전통문화활동 활용한 주민활동: 그라스마켓 타탄

■ 사례개요

○ 스코틀랜드 전통유산에 대한 창의적 활용과 지역사회 기여

- 에딘버러는 1500년 이후부터 스코틀랜드의 수도로 기능하였으며, 올드타운을 비롯한 많은 역사적 유산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관광객 방문이 매년 100만명 이상임
- 특히 스코틀랜드는 Tartan이라 하는 전통 체크무늬 의류 및 모직의 수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북미,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도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에딘버러에서도 Tartan 제품들을 많이 제작·유통·판매하고 있는데, 글로벌 및 대기업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며 영세한 규모로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그라스마켓 타탄의 개요

- 에딘버러 올드타운에 있는 그라스마켓은 수백년된 거리와 소규모 상점가로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그라스마켓 타탄도 이 곳에서 타탄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음
- 매장 매니저인 마리에타 시아타는 그라스마켓 타탄의 로컬 지향 경제활동과 함께 로컬과 함께 공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활동들을 소개하였음
- 우선 그라스마켓 타탄은 제품들의 판매의 수익금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들의 교육과 재취업 및 타탄 제작을 기반으로 로컬크리에이터로 취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그라스마켓에 유통판매점과 함께 편집숍 및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탄제작 및 다양한 교육장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음

- 이러한 장소들은 에딘버러 곳곳에 분리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그라스마켓에는 제품의 판매홍보 및 교류를 위한 공간이 위치하고 있음

■ 주요내용

○ 그라스마켓 타탄의 주요활동과 미션

- 현재 그라스마켓 타탄에서는 초기에 자원봉사자나 파트타임 직원이 많았으나 현재 풀타임 직원이 많으며 연간 총 3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파트타임으로 취약계층은 90여명정도가 참여하고 있음
- 타탄 사회적기업은 연 매출70만 파운드 정도 규모이며 에딘버러 커뮤니티 프로젝트에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였음.

○ 타탄의 수공예 제품의 로컬 지향성과 사회적 가치

- 그라스마켓 타탄에서 제작·판매하는 패션 및 수공예 제품은 에딘버러의 로컬 특성을 이미지화 한 유니크한 패턴을 중심으로 제작
- 다양한 패턴중에서 지역 교회 이름을 형상화한 ‘그레이프라이어 타탄’은 다양한 색의 조화를 통해 에딘버러 로컬문화 확산을 도모
- 파란색(스코틀랜드 상징색), 녹색(교회 수도사들의 허브가든 상징), 갈색(수도사들의 의복색), 보라색(찬생의 축복과 왕가를 상징), 적갈색(교회와 연관깊은 예스터 지역 상징 색), 황금색(블레이크의 예루살렘 시에서 나온 황금실 문구에서 따온 색)
- 최근 2021년에는 위의 다양한 색을 기반으로 수공예품 및 의류생산 업체, 디자이너와 1년이상 교육받은 주민들이 협력하여 다양한 상품들을 선보이는 ‘그레이프라이어 타탄 패션쇼’를 개최하여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고 로컬비즈니스를 활성화 한 성과가 있음
- 로컬의 타탄패턴을 활용한 제품군을 현재 확장중에 있으며 지역 디자이너, 예술가, 주민들이 협력

○ 그라스마켓 타탄의 비즈니스 모델과 교육활동

- 기본적으로 그라스마켓 타탄은 정부의 재원조달을 최소화 하여 자신들의 본질적 가치를 지키고자 하며 수익 프로젝트나 기부활동으로 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접근을 취함
- 특히 에딘버러 장로회 및 가톨릭 등 교회와 협력을 통한 제품유통과 기부금 수입의 비중이 높으며 카페 운영과 에딘버러 곳곳의 매장운영을 통한 수입의 비율도 2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에는 타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타탄제품들을 제작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도 품질관리에 가장 주목하고 있으며 좋은 제품에 좋은 가격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음
- 따라서 전문기술자들은 지역주민 및 지원자들에 대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트레이닝을 거치게 하고 있으며 품질에 다른 수료와 로컬 장인으로서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경력에 따른 레벨로 층위를 두어 인력을 관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업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나 파트타임 직원의 비중이 높았으나 숙련된 직원들이 많아지면서 풀타임 직원 고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제품의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음

○ 그라스마켓 타탄의 로컬활동과 기여활동

- 그라스마켓 타탄은 패션쇼 등의 행사와 제품판매로 인한 수익금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로컬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 기반을 확보하고 있음
- 그라스마켓 타탄이 로컬활동을 위해 수행하는 그라스마켓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수공예품 제작 및 봉제 등에 대한 교육과 업무를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50여명 정도 취약계층이 참여
- 지역사회 취약계층 중심으로 교육과 함께 8,500명분의 식사를 제공하

면서 이들에 제작한 타탄제품 및 수공예품에 대해 매장 및 카페에서 판매하거나 카달로그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로컬자원 이미지 기반의 수공예품이나 제품제작과 판매로 인해 취약계층은 새로운 역량과 자신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취창업활동을 수행하여 주요 로컬의 경제주체로 성장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인 자립과 함께 에딘버러 로컬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관계회복에도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 내 취창업 활동을 통해 자존감 회복을 도모하여 타탄의 활동가치 확산을 장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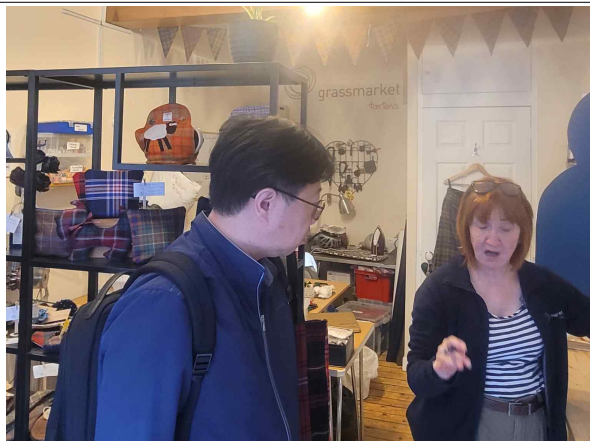
■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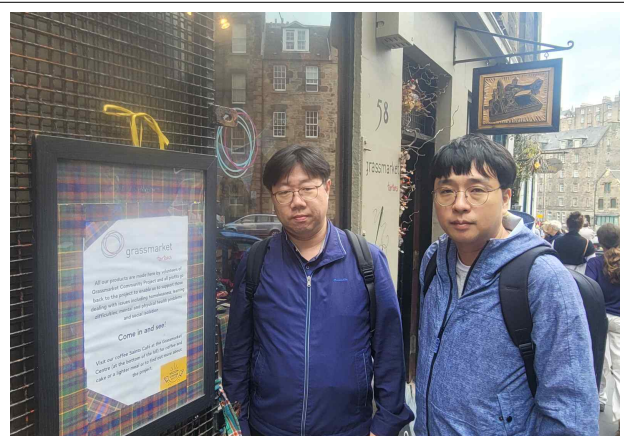
외관 전경



로컬 판매 상품들



매장 및 카페 매니저 인터뷰



타탄 사회적 가치활동 안내문

Ⅲ. 정책적 시사점

○ 지역사회 로컬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사회에서 로컬기반의 창의적 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 영국의 경우 2011년 제정된 「지역주권법」을 기반으로 주민조직 및 공동체기업(CIC)이 로컬자원 및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코인스트리트 공동체와 해크니개발 협동조합의 로컬활동이 지속될 수 있었음
- 국회에서도 마을공동체기본법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으나 충청남도 차원에서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 조직들이 로컬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소유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
- 이와 함께 읍면동 및 주민자치회 차원에서 마을의 자산지도 구축 및 마을차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체적 계획수립의 지원도 요구됨

○ 지속가능한 로컬활동으로 거점공간의 구축 방향

- 로컬크리에이터 및 지역주민들이 특색있는 로컬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해나가기 위한 창의적 거점공간의 중요성은 영국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 브릭스톤의 경우 초기 재개발 과정에서 브릭스톤 하우스라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참여와 로컬 창조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향유의 기회를 마련하였음
- 코인스트리트 또한 네이버후드센터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 정보제공 복리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며 미래의 활동을 함께 고민하고 로컬의 창의적 변화를 도모하였음
- 지속적인 로컬의 창의적 활동을 위해서는 주체들의 사고와 활동공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로컬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기반이 마련이 됨

- 비록 지역사회에서 버려지거나 작은 공간이라도 로컬의 주체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창의적 문화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창의적인 공간 구축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구도심 및 농어촌의 유희공간 등의 로컬크리에이터나 주민들의 창의적 활동공간으로 활용에 대한 설계, 리모델링 등의 지원이 효과적

○ 주민과 공동체가 참여하는 로컬의 민관협치 중요성

- 브릭스톤이 위치한 램버스 자치구의 경우 지역재생이나 개발계획의 경우 수차례의 주민워크숍 및 정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수행함
- 그리고 브릭스톤 지역의 여러 이해관계자 및 공동체기업(CIC)과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재생의 계획을 실천하여 이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와 실제 긍정적인 지역변화가 일어남
- 해크니 개발협동조합 또한 진정한 로컬의 변화는 지역주민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공공이나 정부에서 이러한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선도해 나가야 함을 강조
- 충남에서 읍면동 및 시군단위에서 주민자치회, 주민공동체나 마을기업 등 로컬주체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민관협력의 제도적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로컬활동 확산을 위한 지역주민, 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 필요

- 로컬의 창조적 활동은 외부인이나 로컬크리에이터보다 지역주민 및 공동체 조직과 함께 만들어가는 협력적인 구조가 중요함
- 테이트모던 미술관의 경우도 대내외적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과 지역예술가들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판로를 지원하여 시민 참여활동이 활발함
- 에딘버러의 그라스마켓 타탄이나 아웃오브블루의 사례는 주민대상 적극적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취창업활동을 적극지원하는 형

대로 볼 수 있음

- 브릭스톤하우스나 브릭스톤마켓 또한 낙후지역 취약계층 주민대상으로 로컬의 특징적 자원이나 활동을 중심으로 시장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수요충족이 기반이 됨
- 로컬활동기업이나 기관의 경우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련 활동들에 대한 주민과 지역공동체와 적극적인 연계협력 활동을 설계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음
- 로컬창조활동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와 자원에서 토대하고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국사례들은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의 활동을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R&D나 투자활동으로 인식
- 충남의 로컬창조활동의 주체들 또한 자신만의 창의적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주체들의 참여활동과 융합의 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며 이에 대한 공공의 지원도 함께 모색되어야 함